

음문석 등장, '미우새' 화제성·시청률 다 잡았다



'미운 우리 새끼'가 만능치트키 배우 음문석이 처음 힘들하면서 화제성을 장악한 것은 물론, 최고 시청률이 19%까지 치솟았다.

2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의 따르면 지난 19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이하 '미우새')는 전국 가구 시청률이 10.8%, 9.6%, 12.9%를 기록했다. 수도

이날 19%까지 치솟게 만든 최고의 1분

권 가구 시청률은 11%, 9.5%, 13.1%를 나타냈다. 분당 최고 시청률은 20%에 육박한 19%(수도권 가구 기준)까지 치솟았다.

시청자 수로는 124만명이 시청한 '1박2일' 보다 많은 총 129만명이 시청해 '미우새'가 일요 전체 예능 1위 자리를 차지했다.

이날 19%까지 치솟게 만든 최고의 1분

생활력 만렙 열혈 자취 라이프로 강렬한 첫 인상

최고 시청률 19%... 절친 황치열과 과거 짠내 고백

주인공은 '미운 남의 새끼'로 처음 등장한 배우 음문석이었다. '2019 SBS 연기대상' 시상식이 있던 전날의 일상이 공개된 음문석은 생활력 만렙의 열혈 자취 라이프로 단번에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다. 특히 온수 보일러를 켜는 걸 깜빡 잊은 그는 천물 사워 도중 수건으로 주요 부위만 가린 채 욕실에서 나와 "저라고 나온다고?"라며 모두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여기에 임었던 속옷을 세탁 중인 세탁기에 집어넣는 등 인간미 넘치는 텁텁한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은 서울 상경 20년만에 마련한 문석의 첫 보금자리에 현실 절친, 기수 황치열이 찾아왔다. 문석은 어머니가 보내준 김치로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능숙한 요리 솜씨를 뽐냈다. 그는 과거 힙숙 시절 돈이 없어서 세끼 김치만 먹다 보니 '배는 부른데,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지 못했다. 혀가 갈라지고 눈이 떨리고 귀가 찢어지고 입가에는 베침이 됐다'고 고백했다.

이어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회상했다. 문석은 누구보다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표현했다. "명절 때 엄마가 아무 말을 못 하시고 내 이야기가 나오면 자리를 피하시더라. 정말 죄송스러웠다"고 말했다. 음문석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이 아닌가, 내 인생만 너무 고집하는 건 아닌가" 고민도 했다"고 털어놨다. 이렇게 진지한 대화 도중 문석은 김치자 치열에게 "너 만두 5개 먹는다며?"라며 말해 반전 웃음을 선사했다. 치열이 만두를 더 먹는다고 하자 "이거 아침에 먹으려고 한건데 내가 양보할게"라고

하는 등 솔직하고 훈훈한 모습으로 관심을 모았다. 이 장면은 이날 19%까지 치솟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을 장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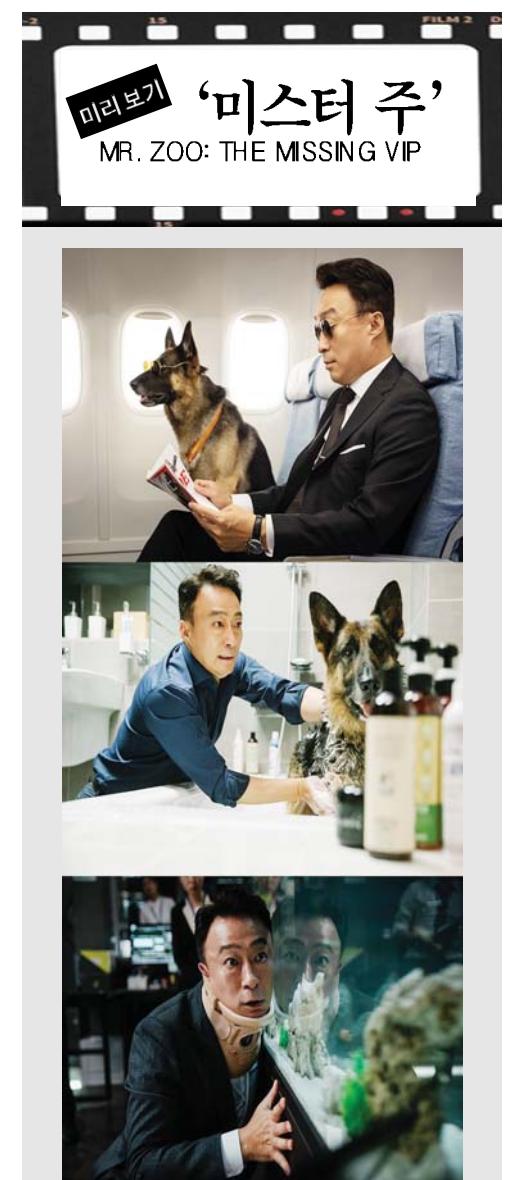
한편 이날 스페셜 MC로는 명품 배우 이성민이 출연했다. 땀abbio인 이성민은 딸이 중학생 시절 사춘기를 겪었을 때 미침 아내도 갱년기가 찾아와서 둘 사이에서 "정말 갈 곳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해 어머니들의 공감을 샀다.

이날 배정남은 절친 동생 변요한과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캠핑여행을 떠났다. 정남은 큰 형님 이성민 표 김치찌개'라며 큰 소리치고 요리를 했으나 맛을 본 요한은 "맛으로 먹나 사랑으로 먹지!"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이어 "김치찌개에서 동치미 맛이 나. 형 이건 도저히 못먹어"라며 리면을 넣고 찌개 심폐 소생술을 선보여 모두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김희철은 이상민과 함께 울산 바닷가에서 개그맨 김영철과 그의 누나를 만났다. 김희철은 "이수근과 찍은 유튜브가 첫 날 100만뷰가 넘지 못하면 입수를 하기로 했다"고 하자 이상민은 "당연히 못 넘는다"며 미리 입수 연습을 해보라며 깐족거렸다. 이에 희철은 혼자가 아니라 퍼를 입은 이상민과 함께 바닷가에 두 번이나 자진 입수해 큰 웃음을 안겼다. 또한 밥을 먹으면서 영철의 누나가 계단지를 상민에게 건네주자 두 사람의 로맨스를 이어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눈길을 끌었다.

'미우새'는 설 연휴에도 변함없이 오는 26일 오후 9시5분에 방송된다.

뉴스1



영화 '미스터 주'는 '사라진 VIP' (감독 김태윤)는 동물과 대화하는 사람이라는 국내에선 처음 선보이는 재기 발랄한 소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버디 무비를 그려냈다. 이성민과 세페드 군�建 '알리'의 캐미는 유치하면서도 귀여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미스터 주'는 동물을 삶아하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주태주(이성민 분)가 특사로 파견된 VIP 경호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VIP가 사라졌고, 설상가상으로 동물과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이에 주태주는 VIP 납치범을 목격한 군건 알리와 함께 '사라진 VIP'를 찾아나선다.

영화는 두 인물의 진지한 수사보다는 이성민의 코미디 열연과 발랄하고 말 많은 알리가 선사하는 코믹 캐미에 집중하며 가볍게 볼만한 영화를 만들어냈다.

원톱으로 나선 이성민의 열연이 돋보인다. 최근 '비스트' '남산의 부자들' 등 무게감 있는 캐릭터를 맡아온 이성민은 '미스터 주'에서 180도 다른 코믹 연기를 선보이며 동물과 감정선을 유연하게 끌어간다. '동물협오자'인 주태주가 동물과 동고동락하는 과정에서 점차 마음을 열어 간다는 평범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풀어나간다.

남다른 열연을 펼친 군건 '알리'도 매력적이다. 말도 많고 하세도 있지만, 긍정적이고 순수한 알리의 모습이 훈훈한 목소리를 짓게 하는 등 기죽 영화에 어울릴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나 알리의 목소리를 맡은 신하균과 이성민의 목소리 캐미도 이목을 사로잡는다.

이뿐만 아니라 판다, 앵무새, 흑염소, 고릴라, 험스터, 퍼그, 독수리까지 각종 동물이 출연하는데 이선균, 유인나, 김수미, 이정은, 이순재, 박준형, 김보성 등이 각각 어떤 동물 목소리 더빙을 맡았는지 찾아보는 것도 재미를 더한다.

하지만 허술한 연출도 눈에 띈다. 중국 대사로 온 판다를 납치하는 장면은 허술하고, 영화 '괴물', 드라마 'SKY캐슬' 등을 패러디했지만 과장된 코미디가 이어진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매끄럽지 않은 전개도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 여기에 시종일관 사고를 치는 만식(배정남 분)과 위기 상황에서도 자아도취한 여배우 캐릭터로 설정한 판다를 통해 1차원적인 웃음을 자아내려는 지점도 아쉬움을 더한다.

사람과 동물의 버디 무비가 자아낼 순수하고 귀여운 매력이 명절 관객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러닝 타임 113분. 오는 22일 개봉.

이성민 "미스터주"·'남산의 부자들' 동시 개봉, 많이 당황"

"촬영 다른 시점...늦게 개봉"

"캐릭터 정반대라 부담 커"

배우 이성민이 자신이 출연한 영화 '미스터 주'와 '남산의 부자들'이 동시에 개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털어놨다.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감독 김태윤) 주연 이성민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이날 두 영화가 동시에 개봉하는 것에 대해 이성민은 "사실 많이 당황했다. 촬영은 많이 다른 시점에 했는데 '남산'은 늦게 개봉하고 '주'도 늦게 개봉하게 돼서 같은 날 하게 됐다"며 "(흥행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안 했다. 다 잘 되진 않더라고" 솔직하게 밝혔다.



뉴스1

두 영화 속 캐릭터가 정반대라 부담감이 덜하지 않냐고 묻자, 이성민은 "그래도 부담 많다. 사실 그런 지점에서는 안 도가 되는 게 있다. 관객분들 보시는데 비슷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런데, 관객들에게 부담은 조금 덜한 흥행이나 이런데에 있어선 부담이 크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스터 주'는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주태주(이성민 분)가 특별한 VIP를 경호하던 임무를 수행하던 중 갑작스런 사고로 온갖 동물의 말이 들리면서 펼쳐지는 사건을 그린 코미디 영화다. 이성민은 동물과 대화하는 능력이 생긴 국가정보국 에이스 요원 주태주 역을 맡아 군건 알리와 함께 '사라진 VIP'를 찾아나선다.

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묘사하는 작품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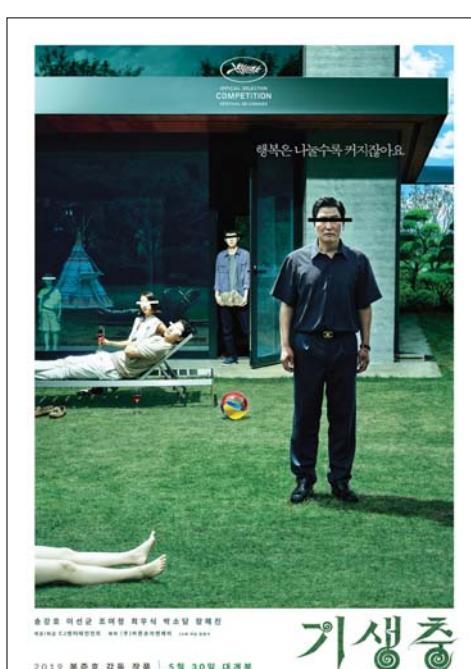
테리 연구원은 '기생충'의 배경인 한국이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로 탈바꿈했음을 디자인 승승과 고용 불안, 경제 격차와 출산율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음을 거론하기도 했다.

또 테리 연구원은 배준호 감독을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나 마틴 스코세이지로 불리는 인물이라고 소개하며 그가 '실인의 주역'이나 '괴물' 등 훌륭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지만 미국에서는 영어로 제작된 '설국열차'만이 주목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기생충'은 오는 2월 열리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국제극영화상(외국어영화상) △각본상 △편집상 △미술상 등 6개 부문 후보작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다르다. 테리 연구원은 현재 한국인들이 자국을 흐리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상 후보작 되자...美매체도 시선집중

"한국인들 자국 치부 드러내는 작품에 자부심 가질 정도로 성숙"



2019 봄춘호 감독 작품 | 5월 30일 개봉

배철수, 첫 단독 토크쇼 도전

'배철수 챔' 오는 2월 3일 편성

배철수의 첫 단독 토크쇼 '배철수 챔'이 오는 2월 3일 편성을 확정했다.

20일 MBC에 따르면 배철수의 첫 단독 토크쇼 '배철수 챔(Jam)'에 방송인 이현이가 힘들었고, 오는 2월 3일 처음 방송된다. '배철수 챔'은 올해로 30주년을 맞은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캠프'의 DJ 배철수가 음악을 통해 사회 각 분야 유명인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함께 수다를 나누는 토크쇼다.

특히, 프로그램 이름의 '잼(Jam)'은 '재미'를 의미하는 한편 사전 준비 없이 즉흥 연주를 이어 가는 음악 용어 'Jam(잼)'을 뜻하는 것으로, 게스트와의 대화에 따라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배철수 챔'은 오는 2월 3일 오후 9시50분 처음 방송된다.